

한중 소설 번역의 테마 구조 비교 연구

공 수
(이화여대)

1. 서론

한국 소설이 중국에 많이 출판되면서 한중 소설 번역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어휘, 문장 등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며 텍스트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텍스트성에서 응집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테마(Theme)를 조명하여 한중 소설 번역에서 개별 테마와 여러 절에 걸쳐 선택된 테마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테마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테마’는 체계기능주의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개념이다.

번역에서 테마의 보존 여부는 베이커(Baker 2011)가 테마를 통해 텍스트의 응집성, 의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문의 테마 전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은 글의 형식이 작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 체계가 다르고, 독자도 다르기 때문에 문법이나 언어 습관으로 인해 원문의 어순을 유지

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이에 베이커(2011)는 원문의 테마 전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도착어에서 자연스러운 응집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테마 전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테마의 보존과 변화에 대한 길잡이를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원문의 응집성과 의도성 등을 위해서는 테마 전개 방식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나, 도착어 텍스트의 응집성과 수용성 등을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소설이 중국어로 번역된 후 테마 전개 방식이 달라지는지, 변화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테마 관련 체계기능주의 이론은 영어를 기준으로 시작한 이론으로 타 언어에 적용할 때 기존 이론을 토대로 해당 언어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번역학 연구에서 영한, 영중과 같이 영어와 타 언어의 언어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았으나 한국어-중국어처럼 영어가 들어가지 않은 언어쌍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이론을 살펴보고 테마와 테마 전개방식의 분석 기준을 정해본다. 다음으로 한국어 소설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의 테마 전개 방식, 테마 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양자 간의 차이 유무와 함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변화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테마 이론 및 분석 기준

테마는 체계기능주의 언어학 개념으로 1939년 프라하 학파 마타이시우스(Mathesius)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알려진 혹은 주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테마와 레마를 구분했으나 할리데이(Halliday)는 담화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김영주 2019: 15). 본 연구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이 주관성이 강하여 양적분석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연구나 테마 관련 번역학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할리데이의 이론을 토대로 했다(方琰 1989; 朱永生 1995; 김동연 2013; 김영주 2019; 이지은 2020)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할리데이의 이론을 적용하겠다.

할리데이는 테마를 메시지의 첫 출발점으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무엇

에 관한 것인지를 말하는 내용으로 정의했다(Halliday 1978). 이 정의는 테마의 ‘대하여성(aboutness)’과 문두성을 강조했다. 이후 할리데이는 테마를 주어진 맥락에서 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완 정의하여 맥락의 중요성을 조명했다(Halliday and Matthiessen 2014: 64; 方琰 2019 재인용).

테마는 화제적 테마(Topical Theme), 텍스트적 테마(Textual Theme), 대인적 테마(Interpersonal Theme)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Halliday and Matthiessen 2014: 105). 영어를 토대로 말하면, 화제적 테마는 과정어, 참여자, 상황부가어 등에 해당하는 요소가 담당할 수 있고, 텍스트적 테마는 계속사, 연결사, 접속부가어 등이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인적 테마는 양태 부가어, 호격, 정형동사운용소 등으로 이를 수 있다(이지은 2020). 텍스트적 테마와 대인적 테마는 경험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제적 테마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복합테마라 한다. 복합테마에는 화제적 테마가 중심이 되어 순서상 다른 유형의 테마 뒤에 나타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와 중국어이기 때문에 언어 특징에 따라 테마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 분석을 위해 각 언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테마 성분과 구분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를 둘러싼 연구를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테마 유형별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2.1.1 한국어와 중국어의 테마 논의

한국어 테마 연구는 그동안 테마의 위치, 성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성기철(1985)은 테마를 담화 내에서 의미 특성과 문두성을 지니는 문장 성분으로 정의했고, 박승윤(1990)은 테마를 문두에서 한정사로 수식된 명사로 한정했으며 최규수(1999)는 문두에 위치한 장면 제시어가 테마라고 파악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어 테마의 특징과 성분을 개별적으로 조명하였으나 종합적인 구분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테마 성분을 통해 어느 정도는 테마를 구분할 수는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은 대량의 소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명백한 구분 기준이 있어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테마의 특징을 고찰한 김(Kim 2007)과 영어 텍

스트와 한국어 번역문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테마를 분석한 김동연(2013)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한국어 테마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유형별로 설명하겠다.

중국어 테마 연구는 할리데이 이론과 중국어의 언어 특징을 접목한 팡옌(方琰 1989, 1995, 2001, 2005, 2019), 할리데이의 이론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어에 적용한 황귀원(黃國文 1988)과 후장린(胡壯麟 1994)이 대표적이다. 황국문과 호장린이 체계기능문법의 소개에 역점을 두는 것과 달리 팡옌은 중국어의 고유한 문법 이론과 할리데이의 테마 이론을 함께 고려하여 대량의 예문을 통해 중국어에 적절한 테마 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팡옌의 연구 결과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테마의 구분, 테마 전개 방식의 확립이 핵심인 만큼 관련 이론 부분을 예문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예문에서 밑줄을 통해 테마 부분을 표시하며, 테마가 생략될 경우 ‘O’로 표시한다. 또한 테마와 레마 사이에 ‘+’로 구분한다.

2.1.2 화제적 테마

화제적 테마의 성분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영어와 비교해 봤을 때 유사점과 상이점이 모두 있다. 상이점은 주로 주어 생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도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영어와 같은 부분인 상황적 요소, 참여자, 과정 성분이 화제적 테마 역할을 하는 예문을 소개하고 주어 생략 유형을 고찰하겠다.

한국어 화제적 테마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참여자, 상황적 요소, 과정 성분이 모두 화제적 테마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은/는’이 테마를 구분하는 데 ‘표기’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고찰해 보겠다.

예시 1) 상황적 요소가 문두에 올 경우
나중에서야+ 그들이 고작 중학생이었다는 걸 알았다. (『아몬드』)

예시 2) 참여자가 문두에 올 경우
나는+ 지체 없이 모퉁이를 돌았다. (『아몬드』)

예시 3) 과정 성분이 문두에 올 경우

특. (김동연 2013)

위의 3가지 화제적 테마는 과정 성분이 문두에 올 경우만 김동연(2013)의 논문에서 새로 발견한 양상으로 의성어, 의태어, 명령절이 독립적인 소절이 될 때 과정성분이 화제적 테마로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2007)은 평서문만 분석했기 때문에 해당 유형을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자와 상황적 요소가 화제적 테마가 될 경우에 대해서 김(2007)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는/은’의 표시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는/은’으로 표시된 주어/참가자(subject/participant)는 상황적 요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화제적 테마로 간주된다. 상황적 요소가 선행할 경우, 상황적 요소가 테마가 된다. 그러나 상황적 요소가 ‘는/은’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주어나 참가자의 텍스트적 기능이 더 클 수 있으며 환경성분과 함께 테마가 될 수 있다. ‘이/가’로 표시된 주어/참가자(subject/participant)는 문두에 위치할 때, 기타 확실한 테마나 생략된 테마가 없을 경우, 해당 주어/참가자가 테마가 된다. (김 2007: 134)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2007)은 ‘는/은’이 표시된 참여자나 주어의 텍스트적 기능을 고려해 화제적 테마의 표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에 대해 김(2007)은 다음 예시를 통해 이유를 설명했다.

예시 4) 서기 1450년, 세종 대왕은 + 쉰넷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다.

예시 4)는 ‘서기 1450년’이 뒤에 있는 내용의 관여성 정보보다는 지향적인 정보(orienting information)를 제공했기 때문에 ‘서기 1450년, 세종 대왕은’이 테마 역할을 한다. ‘서기 1450년’은 특별히 문두에 앉히기보다는 한국어의 전형적 정보 순서에 들어맞는 것뿐이다(김 2007).

위에서 언급한 참여자, 상황적 요소 외에도 김(2007)은 경험적 기능은 없으나 화제적 테마가 될 수 있는 명사형 연어(nominal group)를 설명했다.

예시 5) 숲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중국 후난성에서 발견된 옛 무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김 2007)

예문 5)의 ‘숲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이 경험적 기능은 없지만 ‘는’으로 표시된 문두 성분으로 해당 소설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관여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제적 테마가 된다.

여기까지는 상황적 요소, 참여자, 과정 요소, 명사형 연어 등 화제적 테마의 예문과 구분 기준을 살펴봤다. 다음은 중국어 화제적 테마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국어 화제적 테마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상황적 요소, 참여자, 과정 성분으로 이를 수 있으며 한국어의 ‘는/은’ ‘이/가’ 등 표시가 있는 것과 달리 ‘啊(아)’ 같은 휴지 기능을 하는 어휘의 추가를 통해 테마와 레마를 나눌 수 있다(方琰 1989).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시 6) 상황적 요소가 문두에 올 경우

海邊的峭壁上,+四層的石造建築“慈愛學院”也被籠罩在霧里了。(바닷가 절벽 위에 선 사층짜리 석조 건물 자애(慈愛)학원도 그렇게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했다.)(『熔爐』)

예시 7) 참여자가 문두에 올 경우

少年+跛着腿。(소년은 다리를 절룩거렸다.)(『熔爐』)

예시 8) 과정 성분이 문두에 올 경우

冒出+一只鳥。(새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方琰 1989)

위의 예문을 보면 상황적 요소와 참여자가 문두에 위치할 경우, ‘啊(아)’ 같은 어휘를 테마의 끝 부분에 추가할 수 있으며 발화하는 과정에 잠깐 멈추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과정 성분이 테마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나타났다’, ‘사라졌다’ 등 의미를 뜻하는 동사가 문두에 위치하며 참여자가 뒤에 있는 ‘과정+참여자’ 유형의 소절이다.

중국어 테마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어처럼 ‘는/은’ ‘이/가’ 등 표시가 없으나 어순이 중요한 언어인 만큼 SVO, SOV, OSV, VS와 VO 등 5가지) 문장 어순에 따라 테마 구분 기준이 고안되었다(方琰 1989). 팡옌(1989)은 주어 가 먼저 나타나는 문장 유형인 SVO와 SOV는 모두 주어가 테마에 해당하고, 주어

1) 뤄수샹(呂叔湘)의 『논문집(論文集)』에서 제시된 어순 유형이다(方琰 1989).

가 있으나 목적어와 도치되는 OSV의 경우, 문두에 있는 목적어가 테마에 해당한다. VS의 경우, 앞에 상황적 요소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椅子上坐着一个人老頭(의자에는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다)’같은 경우, 상황적 요소인 ‘의자’가 테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문6)과 같이 과정 성분에 해당하는 술어가 테마가 된다. 마지막 VO의 경우, 팡옌(1989)은 이를 주어 생략이나 주어 없는 유형으로 보고 분석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테마가 다를 수 있으며 다음절에서 한국어의 주어 생략 유형과 같이 설명하겠다.

2.1.3 주어 생략

한국어의 주어 생략 소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된 주어가 테마 역할을 하지만 보족어형 테마와 무테마 등 두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다(김 2007). 첫째 보족어가 테마 역할을 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생략된 주어가 불특정인 대상이거나, 선행절의 테마와 대비가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김(2007)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예시 9) 소리를 일으키는 물체를+받음체라고 합니다.

예시 10) 윤영은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적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예문 9)는 생략된 주어가 불특정 대상인 ‘우리’이기 때문에 보족어가 텍스트적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 역할을 한다(김 2007). 예문 6)은 앞뒤 두 절의 보족어가 ‘는/은’으로 표시되어 테마가 된다.

둘째, 주어 생략으로 인해 무테마, 즉 테마가 없는 소설도 있다. 김(2007)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예시 11) 강감찬이 일흔한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예시 11)는 생략된 주어가 영어의 가주어와 유사기능을 하여 텍스트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으므로 테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김 2007). 이러한 유형의 소설이 본 연구에서도 많이 발견하여 테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테마

전개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중국어의 주어 생략은 대부분 VO 유형이다. VO 유형의 소설은 주어 가 생략되거나 주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한국어처럼 대부분 선행절과 주어가 같아 생략된 주어가 테마가 된다. 그러나 특별한 예도 있다. 영어의 가주어와 유사기능을 하는 주어가 생략될 경우,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테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팡옌(1989)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예시 12) +下雨了。(비가 내린다.)

예시 12)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하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는데 테마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외의 VO 유형 소설은 술어가 테마 역할을 한다. 다음 팡옌(1989)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예시 13) 有+一个鳳丫頭, 就有+一个你。(풍씨가 있다면, 니가 있다.)

이러한 경우, 주어가 없거나 주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술어가 소설의 시작점으로 테마가 된다(方琰 1989).

2.1.4 텍스트적 테마

한국어의 텍스트적 테마는 연결사, 접속부가어와 계속사가 해당 기능을 할 수 있다(김동연 2013). 연결사는 절과 절간의 등위적 접속의 역할을 하고, 접속 부가어는 선행텍스트와의 어떠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계속사는 한 담화에서 다른 담화로 넘어갈 때 새로운 신호로 쓰이거나, 대담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김동연(2013)에서 발췌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14) 연결사일 경우
만약 그가 죽는다면,

예시 15) 접속부가어일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외롭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예시 16) 계속사일 경우
 음, 애를 찾아야지.

중국어의 텍스트적 테마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며 ‘好, 是的, 不是(좋아, 그래, 아니)’같은 연속 성분, ‘雖然…但是(비록..하지만)’·‘換句話說(바꿔 말하자면)’같은 연결사 등 형식 표지가 있다(方琰 2019). 다음과 같은 팡옌(2019)에서 발췌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시 17) 연속성분일 경우
 好的, 我明天去。(그래, 내일 갈게.)

예시 18) 연결사일 경우
 雖然肚子餓, 但不想吃飯。(배고프지만 밥은 먹고 싶지 않다.)

2.1.5 대인적 테마

한국어의 대인적 테마는 양상부가어와 호격이 있다(김동연 2013). 양상부가어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요소로 문법에서의 부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호격은 누군가를 부르는 칭호이다. 다음과 같이 김동연(2013)에서 발췌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19) 양상부가어일 경우
 물론 이 팀이 우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예시 20) 호격일 경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시도해왔습니다.

중국어의 대인적 테마는 ‘啊(아)’같은 감탄사, 호격, ‘肯定(확실히)’와 같은 서법 부사가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다(方琰 2019).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시 21) 감탄사일 경우
 啊, 我好想回家。(아,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예시 22) 호격일 경우
 智英, 回家吧。(지영아, 집에 가자.)

예시 23) 서법부사일 경우
 肯定是他做的菜好吃。(확실히 그가 만든 요리는 맛있어.)

2.2 테마 전개 방식

테마 전개 방식은 담화의 연속성(continuity)을 확보하고 텍스트의 열개를 짜기 위해 한 테마가 다른 테마 또는 레마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잘 짜인 텍스트는 텍스트 내용의 구성 방식이 테마 패턴에 드러나 쉽게 읽히기 때문에 텍스트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위해 중요하다(McCabe 1999:169; 김영주 2019 재인용).

단스(Danes, 1974)는 대표적인 테마 전개 방식으로 선행절의 레마가 후행절의 테마가 되는 단순 선형 전개 방식(linear thematic progression), 선행절의 테마가 후행절에 반복되는 지속형 전개 방식(Theme iteration), 하나의 테마에서 후행절 다수의 테마가 연결된 파생형 전개 방식(derived progression)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더 세분화하거나 추가하기도 했다. 그중 두보이스(Dubois 1987; 김영주 2019 재인용)는 테마의 흐름을 끊는 문장이 중간에 간섭하는 패턴을 의미하는 간극형(gapped) 전개 방식을 언급했다. 메카베(McCabe 1999; 김영주 2019 재인용)는 추가로 레마의 내용이 둘 또는 그 이상의 테마로 나뉘는 레마 분할식(split Rhyme) 전개 방식을 포함시켰다.

상술한 학자들이 제시한 전개 방식은 각자의 분석대상을 바탕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전개 방식으로 선행절의 테마와 후행절 테마, 선행절 레마와 후행절 테마와 레마가 관계를 갖는 전개 방식들이다. 선행절 테마와 후행절 레마와 관계를 갖는 전개 방식은 없다. 실제로 본 연구의 예비 분석이나 기존 학자의 연구(朱永生 1994)에서 선행절의 테마와 후행절의 레마가 연관 관계가 있는 유형이 발견되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예시 24) I +turned around and looked at them, but they +didn't pay attention to me.(朱永生 1994)

예시 25) 중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안개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리뿐이니까.(도가니』)

예문 24)는 선행절의 테마 'I'와 후행절 레마 부분의 'me'가 같은 내용이며 (朱永生 1994), 예문 25)에서, 선행절의 테마 '중소리'와 후행절의 레마 부분의 '소리'가 상하위 개념으로 선행절 테마와 후행절 레마가 관계가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도 포함시키며 '교차형'으로 명명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단스(1974)의 파생형에 대해 수정하고자 한다. 단스(1974)가 정의한 파생형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상이하지만 동일한 토픽 또는 대주제에서 파생된 경우다. 일례로 일기예보에서 각 절의 주제가 날씨, 온도, 구름 등 다르지만 일기란 대주제와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이창수 2014). 이러한 서술 방식은 소설보다 정보성 텍스트에 많이 나타나며 실제 예비 분석에도 이러한 유형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파생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성이 있다는 개념으로 확대되면 해당 예문이 훨씬 많다. 다음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췌한 예문을 보자.

예문 26) 더 이상 아무 말도 + 나오지 않았다. 정대현씨는 +아내의 이름을 세 번쯤 더 불렀던 것 같다.

예문 26)은 선행절 테마 '더 이상 아무말도'와 후행절 테마 '정대현씨는'이 모두 '정대현씨'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파생보다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더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생형 전개 방식'을 선행절 테마와 후행절 테마가 관련성이 있다는 '관련형 전개 방식'으로 수정하여 분석하겠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단스(Danes 1974)가 제시한 단순 선형 전개 방식, 지속형 전개 방식, 두보이스(1987)의 간극형, 메카베의 레마 분할형과 함께 교차형, 테마 관련형으로 분석하겠다.

2.3 테마 관련 번역학 연구

번역연구에서 테마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테마 선택, 테마 유형, 테마 전개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번역문

과 원문, 번역문과 비번역문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겠다.

우선 영한 번역에서 테마 유형의 양적 변화와 원인을 분석한 김동연 외 2명(2011)은 소설과 비소설 작품 8편에서 한 장씩 내용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절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한국어 번역문의 화제적 테마와 텍스트적 테마는 영어 원전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김동연 외 2명(2011)은 각 유형 테마의 성분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번역문에서 과정참여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상황적 요소의 수는 증가했다는 현상도 확인하였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보도문에서 사용된 테마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보도문 장르가 갖는 특성을 밝혀내려고 한 김영주(2019)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보도문의 원문, 번역문, 비번역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테마 유형과 테마 전개방식을 분석하였다. 김영주(2019)는 같은 장르가 사회적으로 동일한 텍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시각에서 한국어와 스페인어 보도문의 테마구조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나 도착어 관습, 언어적 특징 차이, 번역 고유의 특징 등으로 인해 상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 법조문과 영어 번역문의 테마 선택을 비교·분석한 이지은(2020)은 원문 227개 항과 해당 번역문의 테마 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테마 선택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 테마의 문법적 역할이 달라진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언어 통사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테마 선택의 내용이 다를 경우, 원문의 테마 선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번역문의 텍스트 연속성 차원과 가독성 차원 등을 위해 원문의 레마에서 테마를 가져온 번역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중영 번역에서 테마 전개방식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를 한 리젠과 항홍(李健 and 杭宏 2015)은 중국어 원문의 테마 전개방식에 대한 유지 비율이 낮은 것을 발견했다. 그의 원인으로 언어 측면에서는 중국어의 의합과 영어의 형합의 특징, 문화 측면에서는 영어권 독자와 중국어권 독자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 소개한 선행연구는 한영, 영한, 한서, 중영 등 다양한 언어 조합의 번역문, 원문, 비번역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테마의 보존 여부와 해당 원인을 밝혔다. 다른 언어 조합의 활발한 연구와 달리 이쉽게도 한중 번역에서는 테마에

대한 번역 현상 고찰과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 등을 토대로 한중 소설 번역에서 테마 유형, 테마 전개 방식의 양적 변화와 함께 해당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한중 소설 번역의 양상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소설(ST)과 중국어 번역문(TT)의 테마 전개 방식과 테마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소설이 중국 독자를 위한 중국어 소설로 번역된 후 테마 전개 방식이 보존되는지, 테마 유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 번역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번역 현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 출판된 대표적 한국 소설『도가니』, 『82년생 김지영』, 『아몬드』의 원전과 번역문 일부²⁾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해당 작품은 중국에서 화제작이 될 정도로 주목을 받은 만큼 가독성과 관련이 있는 테마 연구에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선택한 것이다.

분석단위는 테마 관련 연구에서 대부분 절(*clause*)을 단위로 한다. 절은 체계 기능문법에서는 문장이 하나의 절로 구성되는 단일절,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지는 복합절이 나누어져 있다. 복합절은 병렬문으로 구성되는 대등절,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는 내포문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종속절을 독립적 분석 단위로 보기도 한다. 김동연(2013)에서 테마의 구체적 성분의 양적 비교를 위해 절의 구조를 가진 종속절을 포함해서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김영주(2019)에서는 원문, 번역문 및 비번역문의 테마 전개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종속절이 텍스트 전체의 테마 전개 방식을 살펴보는데 단위가 작다는 점을 보고 종속절을 내포문의 하위범주로 분석했다. 중국어 테마 관련 연구에서는 비교적 큰 의견차 없이 종속절을 내포문 하위범주로 간주하고, 독립절, 복합절의 대등절, 내포문

2) 작품마다 양이 비슷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도가니』는 1~5장, 『82년생 김지영』은 1장, 『아몬드』는 1~2장을 분석했다.

을 분석단위로 한다. 본 연구는 테마 전개 방식을 고찰해야 하는 연구목적과 분석 대상 언어를 고려하여 내포문, 대등절, 단일절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종속절은 내포문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따로 분석하지 않겠다.

분석 기준은 앞서 2.1과 2.2에서 논의한 테마 구분 기준과 테마 전개 방식 유형 기준을 토대로 한다. 테마 전개방식과 테마 유형의 양적 분석을 위해 각 작품의 원문과 번역문을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나누었는데 원문과 번역문 각각 471개, 535개 독립 분석 절이 있다. 다음으로 독립 분석 절 별로 상술한 테마 구분 기준에 적용하여 테마를 표시하고, 테마 전개 방식 유형 기준에 따라 절 간의 전개 방식 유형 방식을 표시해 두었다. 양적 비교 결과와 해당 원인 분석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3.2 테마 전개 방식의 비교 분석

먼저 테마 전개 방식부터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1>를 보면 원문과 번역문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변화는 있다. 전개 방식의 백분율을 봤을 때 원문의 테마 관련형, 간극형이 많은 편이고, 번역문의 지속형, 단순 선형이 원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차형과 레마 분할형은 백분율이 거의 같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통사, 장르 등 측면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원문과 번역문의 테마 전개 방식 비교

구분	ST					TT				
	도가니	아몬드	82년생 김지영	합계	백분율	도가니	아몬드	82년생 김지영	합계	백분율
지속형	8	15	96	119	25%	25	37	118	180	34%
테마 관련형	21	7	52	80	17%	18	7	46	71	13%
단순 선형	13	20	27	60	13%	14	20	52	86	16%
간극형	51	46	84	181	38%	54	35	74	163	30%
교차형	4	10	4	18	4%	4	8	7	19	4%
레마 분할형	3	4	6	13	3%	1	4	11	16	3%
합계	100	102	269	471	100%	116	111	308	535	100%

우선 번역문의 지속형이 많다는 양적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원문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관계절(relative clause)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절은 그 머리명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절로서, 관계화 변형으로 얻어지는 수식 부분을 관계절이라고 그 수식을 받는 부분을 머리명사라고 부른다(진실로 2007). 관계절은 한국어에 많이 등장하는 문장 유형인데 긴 수식어가 특징이다. 이러한 관계절이 중국어로 번역될 경우, 긴 수식어가 원래 어순대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중국어의 문미하중 습관을 고려하여 대부분 어순 조절을 한다. 즉 원문의 관계절이 문두에 위치할 경우, 번역문에서 문미로 이동시킨다. 바꿔 말하면 원문의 테마가 번역을 거쳐 레마로 변화하는 것이다. 다음 『82년 생 김지영』의 원문과 번역문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시 27)

ST:(1)정대현 씨의 여동생, 정수현 씨의 가족들이+ 왔다. (2)정대현 씨보다 두 살 어리고 김지영 씨보다 한 살 많은 정수현 씨는+ 남편, 두 아들과 부산에 살고 있고 시댁도 부산이다.

TT:(1)鄭代賢의妹妹鄭秀玄+回來了. (2)她+比鄭代賢小兩歲, (3)(O)+比金智英大一歲, (4)(O)+平時和丈夫以及兩個兒子一起住在釜山, (5)她的婆家+也在釜山.

예시 27) ST절(2)는 긴 관계절인 ‘정대현 씨보다 두 살 어리고 김지영 씨보다 한 살 많은 정수현 씨는’가 테마인데 중국어 번역문에서 ‘정수현 씨는’은 대명사‘她’로 번역되고, ‘정수현 씨’의 관계절 부분은 주어가 생략된 소절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중국어의 문장 특징인 문미하중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성된 절들의 테마 전개 방식도 중국어 소설의 절 구조 특징인 유수구(流水句)에 부합한다³⁾. 여기서 말하는 유수구는 여러 소절로 구성되는 복합절로 문법적이거나 어휘적인 연결 표시가 없으나 각 소절 간에 의미적 관계가 있으며 대부분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절이다⁴⁾(盛麗春 2016). 특히 주어가

3) 차오징이(曹靖一 2019) 연구에서 ‘중국어의 일상대화나 소설 텍스트에 주어가 생략된 유수구가 많이 있으며 유수구를 구성된 각 소절이 주어가 생략되지만 주제는 같다’고 언급했다.

4) 유수구는 뤼수샹(呂叔湘 1979)에 의해 먼저 제시되어 이후 많은 학자들이 관련 정의

생략된 절은 선행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가 많으며 이는 테마 전개방식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속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번역문의 지속형 전개 방식이 비교적 많다는 양상은 한국어 원문의 관계절, 중국어 문장의 문미하중 원칙과 함께 중국어 소설 텍스트의 절 전개 방식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번역문의 간극형이 비교적 적다는 양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원문의 테마 없는 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 한국어 화제적 테마 관련 이론을 소개할 때 영어의 가주어에 해당하는 주어가 생략된 절이 테마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무생명 성분+이다’의 유형으로 중국어에 이러한 어순이 없어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로 인해 테마가 바뀌어 테마 전개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 다음 『아몬드』의 원문과 번역문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예시 28)

ST:(1) 그 외침은 +으,가 되었다가 (2)O+이이, 가 되기도 했다. (3)+모퉁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TT:(1)吶聲+一下是“呃”, (2)O+一下又變成“啾 啾 啾”. (3)聲音+是從轉角的巷子傳來的.

예시 28) ST의 절(3) ‘모퉁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는 테마가 없는 절인데 선행절과 간극형 전개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당 절이 중국어 번역문에 ‘聲音是從轉角的巷子傳來的(역번역: 소리가 모퉁이에서 들려왔다)’로 번역되어 테마가 ‘소리’가 되어 선행절의 테마인 ‘소리’와 같아 지속형 전개방식이 되었다. 이렇듯 출발어와 도착어의 통사적 특징이 달라 의무적으로 테마를 다시 선택해야 하므로 테마 전개 방식도 달라진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원문의 전개방식을 유지하지는 못하나 도착어 습관에 맞게 전개 방식을 형성했다.

여기까지 번역문의 지속형이 비교적 많고, 간극형이 비교적 적은 원인에 대해 분석해왔다. 번역문의 테마 관련형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예문 28)을 보면 원문은 테마 관련형인데, 번역문은 지속형이

를 보완해 왔다. 본 연구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수구에 대한 체계적으로 연구한 성리춘(盛麗春 2016)의 정의를 인용한다.

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테마 관련형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문의 단순 선형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편인데, 각 작품별로 보면 양상이 살짝 다르다. 『아몬드』와 『도가니』는 원문과 번역문의 단순 선형 빈도가 각각 ‘13(ST), 14(TT)’ ‘20(ST), 21(TT)’로 거의 같지만 『82년생 김지영』만 ‘27(ST), 52(ST)’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절을 보면 번역자가 원문의 레마를 번역할 때 명시화 전략을 통해 번역문의 레마 부분이 후행절 테마와 연결성을 맺게 되는 것이다. 다음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시 29)

ST:(1)다음날, 김지영씨와 정대현 씨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고, (2)O+튀김을 튀기고, (3)O+갈비를 찌고, (4)O+송편을 빚고, (5)O 중간중간 +밥을 차렸다. (6)가족들은+막 만들어진 명절 음식들을 먹으며 (7)O+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T:(1)隔天, 金智英与婆婆除了從早到晚都在忙着做煎餅、炸食物、炖牛小排、揉松餅, (2)O還要+準備家人的午飯和晚餐。 (3)一家人+吃着熱騰騰的佳節美食, (4)O+共度歡樂的時光。

예시 29)ST 절(5)의 레마가 ‘밥을 차렸다’인데, 번역문에는 ‘準備家人的午飯和晚餐(역번역: 가족들의 점심과 저녁을 차렸다)’로 원문의 ‘밥’에 대한 명시화 번역 전략을 통해 ‘가족들’을 추가하여 후행절의 테마인 ‘가족들’과 같아 단순선형의 전개 방식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언어의 통사적 원인으로 의무적 바뀌야 한다거나 도착어의 언어 습관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기보다 번역자의 개인적 번역 스타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테마 유형의 비교 분석

테마 전개 방식의 비교는 텍스트 전체 차원에서 번역 특징을 반영한다면 테마 유형의 분석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절 차원에서 번역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는 한국어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의 유형별 테마 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한국어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의 총 테마 수 비교

구분	ST			합계	백분율	TT			합계	백분율
	도가니	아몬드	82년생 김지영			도가니	아몬드	82년생 김지영		
화제적 테마	105	106	254	465	90%	121	116	297	535	84%
대인적 테마	6	6	12	24	5%	6	5	19	30	5%
텍스트적 테마	9	6	11	26	5%	18	19	38	75	12%
합계	120	118	277	515	100%	145	140	354	640	100%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화제적 테마는 원문 90%, 번역문 84%로 원문이 비율이 더 크고, 텍스트적 테마는 원문 5%, 번역문 12%로 번역문이 더 높으며, 대인적 테마는 원문과 번역문이 모두 5%로 비중이 비슷하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번역문의 텍스트적 테마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자. 이는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중국어의 연결사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연결 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의미전환, 나열, 인과, 조건, 순서, 양보 등 관계를 나타낸다⁵⁾. 해당 부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연결 관계에 따라 생략되거나 연결사로 표현된다. 생략된 경우는 다음절에서 상술하고 우선 연결사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분석 대상을 보면 번역문에 텍스트적 테마가 있지만 원문에 없는 경우는 대부분 원문에 의미 전환 어미가 있다. 의미 전환 어미는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의미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로 표현된다. 의미 전환 연결사는 중국어 어순에 따라 문두에 위치한다(周剛 2001). 이로써 텍스트적 테마가 된다. 다음 『도가니』에서 발췌한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예시 30)

ST:(1)안개는+ 아직 육지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2)O+가느다란 그물을 펼치듯이 서서히 사물들을 지워가고 있었다.

TT:(1)霧+尚未完全攻陷陸地, (2)然而O+就像上天撒下長長的網子, 慢

5)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연결 어미’ 정의, 서평(2020)에서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참고했다.

慢地將事物抹去。

예시 30)ST 절(1)의 전환의미 어미인 ‘-지만’이 TT 절(2)의 문두에 위치하는 연결사 ‘然而’로 번역되었다. 원문에는 문미에 있어 레마 성분에 해당하지 만, 번역문에는 테마가 됨으로써 번역문의 텍스트적 테마의 양이 비교적 많아 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텍스트적 테마가 추가되어도 테마 전개 방식은 보존되 었다. 번역문에서 원문의 화제적 테마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어미를 번역할 때 연결사로 표현하는 대신 생략되기도 한다고 언급했 다. 본 연구의 목적이 어미 번역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미 번역이 테마의 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분석하겠다.

<표 2>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적 테마의 양적 차이는 있으나 큰 격차 가 아니다. 모든 어미가 다 연결사로 번역되지 않고 어미의 연결 관계에 따라 중국어의 의합(意合)법을 동원하여 생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의합(意 合)은 연결사를 사용하지 않은 복문의 조합법이다(任帥眞 2015). 보통 시간적 순서, 공간적 크기 순서, 심리적 중요도 순서,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 순서로 의 미를 표현할 경우 중국어의 어순 습관에 부합하기 때문에 연결사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의합법이 동원된다(任永軍 2010). 따라서 한국어의 나열, 순서, 인과 등 어미는 중국어로 번역될 때 앞서 언급한 전환 관계 어미와 달리 생략될 수도 있다. 다음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췌한 예문을 보자.

예시 31)

ST:(1)정대현 씨가+ 금요일 휴가를 냈고, (2)세 식구는 +아침 7시에 집에 서 출발해 (3)다섯 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다.

TT:(1)鄭代賢+向公司請了一天假, (2)早上七點一家三口+便從家里出 發, (3)五小時后抵達釜山.

예문 31) ST 절(1)의 순서 어미‘-고’가 TT에서 연결사로 번역되지 않았다.

- 6) ‘의합(意合)’은 ‘복문 안에는 두 개 이상의 문장형식이 있는데 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논리적 관계를 통해 이해되어 의합법이라 한다’고 왕리(王力)에 의해 먼저 언급되었다. 이후 학자들이 문장뿐만 아니라, 어휘, 텍스트 등까지 의합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절 간의 의합만 조명한다.

연결사가 없어도 시간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 같다. 물론 원문의 ‘-고’를 연결사인 ‘然后(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번역전략을 선택하는지는 번역자에 달려 있다. 번역자는 우선적으로 선택 되는 규범이 가독성이다(원종화 2008). 즉 독자가 가장 익숙한 표현 방법을 통 해 독자의 정보처리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번역전략을 선택한다. 여 기서는 중국 독자가 익숙한 의합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표 2>의 번역문 화제적 테마 백분율이 원문보다 낮은 양상을 분 석해 보자. 사실 화제적 테마의 수는 번역문이 535개로 원문의 465개보다 많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것처럼 번역문의 텍스트적 테마가 75개로 원문의 26개보다 많기 때문에 번역문의 화제적 테마가 차지하는 백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번역문의 화제적 테마 수가 원문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화제적 테마가 많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석된 절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테마가 없는 절을 제외하면 모든 절에 다 화제적 테마가 있기 때문이 다. 번역문이 원문보다 독립적으로 분석된 절이 많은 것은 한국어의 관계절 빈 도가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앞의 예시 27)을 보면 원문은 관계절로 구성되 는 내포문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석된 절은 2개만 있지만 번역문은 관계 절을 모두 단절로 번역되어 분석된 절이 5개나 있다.

이상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테마 전개 방식은 번역문과 원문이 약간의 차이가 보이며 언어간 통사적 차이, 도착어의 표현 습관, 번역자의 번역 스타일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형별 테마는 번역문의 텍스트적 테마수가 많은 편인데 한국어의 어미와 중국어의 연결사 위치 차이가 원인으로 볼 수 있 다.

4. 결과 논의

본 연구는 텍스트적 시각에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 소설의 번역 양상과 원인을 고찰했다. 체계기능문법의 테마 이론을 동원하여 『도가니』, 『82년생 김 지영』, 『아몬드』의 원문과 번역문 각각 471개, 535개 절을 대상으로 테마 전개 방식과 유형별로 테마의 수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변화 원인을 분석했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번역문의 테마 전개 방식은 원문과 상당부분 같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번역문의 지속형, 단순 선행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간극형의 비중이 더 적은 편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1) 지속형이 더 많은 것은 원문의 관계절과 도착어 중국어의 문미하중 습관과 관련이 있다. 2) 간극형이 더 적은 원인은 원문에 가주어 생략에 해당하는 절이 있기 때문이다. 3) 단순 선행이 더 많은 것은 번역자의 번역 전략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중국어 번역문이 한국어 소설 원문의 테마 전개 방식을 대부분 보존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습관 차이, 통사적 원인 혹은 번역자 개인의 번역 스타일 때문에 전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번역문의 유형 별로 테마 빈도도 원문과 거의 비슷하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번역문의 텍스트적 테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의 어미와 중국어 연결사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미전환의 역할을 하는 어미일 경우 중국어로 번역될 때 문두에 있는 연결사로 번역되어 텍스트적 테마가 된다. 텍스트적 테마의 수가 많아지지만 화제적 테마가 유지되기 때문에 테마의 전개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한중 소설 번역의 텍스트적 양상, 테마 전개 방식의 보존 여부, 원문의 테마 전개방식에 대한 보존이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번역 전략 등을 밝힘으로써 번역학 연구와 번역 교육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례만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비교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속 연구에서 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동연, 최진숙, 안동환 (2011)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구조 비교」, 『언어과학』 18(4): 21-46.
 김동연 (2013)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구조의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영주 (2019) 『보도문 한-서 번역의 테마 구조 비교 분석』,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승윤 (1990) 『기능문법론』, 서울: 한신문화사.
 최규수 (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입자말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서평 (2020)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사용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성기철 (1985)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65-90.
 원종화 (2008) 「자막번역에서의 유표적 주제구조」, 『번역학연구』 9(1): 167-191.
 이지은 (2020) 「한영 법률 번역에서 주제 (theme) 선택에 관한 사례 연구: 체계 기능주의 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22(2): 129-156.
 이창수 (2014) 「번역 및 비번역 영어 관광 안내문의주제 전개 방식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6(3): 127-145.
 진실로 (2007) 「관계절 구문의 정보구조와 정보흐름 재현 전략」, 『번역학연구』 8(2): 193-216.
 任帥眞 (2015) 「한어 意合法的 구조와 의미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94): 37-57.
 曹婧一 (2019) 「基于小說文本的漢語關係句系統建构」, 『渭南師範學院學報』 034(012): 25-37.
 方琰 (1989) 「試論漢語的主位述位結構——兼与英語的主位述位相比較」, 『清華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 66-72.
 方琰, 艾曉霞 (1995) 「漢語語篇主位進程結構分析」, 『外語研究』 (2): 20-24.
 方琰 (2001) 「論漢語小句複合体的主位」, 『外語研究』 (2): 56-58.
 方琰 (2005) 「系統功能語法与語篇分析」, 『外語教學』 26(6): 1-5.
 方琰 (2019) 「試論漢語的話題主位」, 『当代修辭學』 212(02): 11-27.
 胡壯麟 (1994) 『語篇的銜接与連貫』,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黃國文 (1988) 『語章分析概要』,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李健, 杭宏 (2015) 「漢英語篇翻譯中主位推進模式的轉換」, 『外國語言文學』 32(001): 32-40.
 呂叔湘 (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 商務印書館.
 任永軍 (2010) 「漢語意合問題研究述略」, 『漢語學習』 (3): 64-71.

盛麗春 (2016) 『現代漢語流水句研究』, 吉林大學語言學及應用語言學博士論文.
 周剛 (2001) 「漢、英、日語連詞語序對比研究及其語言類型學意義」, 『語言教學與研究』 000(005): 42-54.
 朱永生 (1995) 「主位推進模式與語篇分析」, 『外語教學與研究: 外國語文雙月刊』 (3): 6-12.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Danes, Frantisek (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23: 106-128.
 Dubois, Betty Lou (1987) 'A reformulation of thematic progression typology',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7.2: 89-116.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Hodder Arnold.
 Halliday, Michael, Christian MIM Matthiessen, and Christian Matthiessen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 New York: Routledge.
 Kim, Mira (2007) *A Discourse Based Study on Theme in Korean and Textual Meaning in Translation*,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McCabe, Anne M (1999) *Theme and Thematic Patterns in Spanish and English History Texts*, A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ston University.

<분석 텍스트>

ST1: 공지영(2009) 『도가니』, 파주: 창비
 ST2: 조남주(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ST3: 손원평(2017) 『아몬드』, 파주: 창비
 TT1: 李牧春 譯 (2013) 『熔爐』,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TT2: 尹嘉玄 譯 (2019) 『82年生的金智英』,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TT3: 謝雅玉 譯 (2019) 『杏仁』, 北京: 民主與建設出版社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matic Structures in Korean Novels and Chinese Translation Novels

Kong, Su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possible differences in thematic structure which includes thematic progression patterns and types between Korean novels and their Chinese translations which were published in China.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adopts Kim(2007) and Fang's(1989, 2019) Korean and Chinese thematic theory as a basis for analyzing texts' theme and rheme. Also the study uses Danes(1974), Dubois(1987) and Zhu(1994)'s classification of thematic progression methods for analyzing thematic progression patterns. Data analysis reveal som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corpora. The paper discusses these findings and analyses the reasons which will be useful for the study of novels' translation phenomenon and also can be helpful for translators to choose translation strategies.

▶ Keywords: thematic progression, theme, rheme, novel translation, Korean-Chinese translation

▶ 주제어: 테마 전개 방식, 테마, 레마, 소설 번역, 한국어 중국어 번역

공수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시간강사

kongsusky@naver.com

관심분야: 기계번역, 체계기능문법, 번역 교육, 코퍼스 번역학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30일